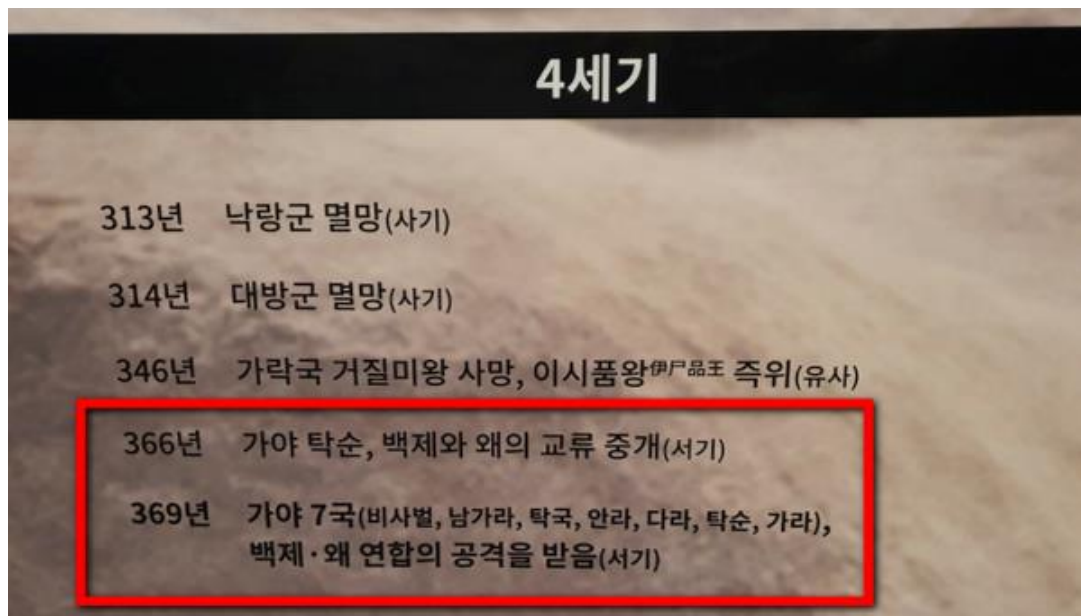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가야전시는 임나일본부설 선전장인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본성'이란 이름의 가야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야사 복원 지시에 따른 중간 결과물입니다. '신비의 왕국, 철의 왕국 가야'의 진면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훌륭한 유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전시회의 설명, 지도, 연표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의 스에마쓰 야스카즈가 총괄했다고 보면 명실상부할 정도로 임나일본부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369년 야마토왜가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는 《일본서기》의 조작된 내용이 '서기'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고대 야마토왜가 군사강국이라는 일본 극우파의 황국사관으로 야마토왜가 가야를 지배했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황제국인 야마토왜가 제후국인 백제에게 영토를 하사했다는 《일본서기》의 허황된 내용도 '서기'라고 인용해 놓았습니다. 칠지도는 황제국인 백제가 제후국인 왜에게 칠지도를 하사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한민국 국민세금으로 야마토왜는 황제국이고, 백제는 제후국이고, 가야는 야마토왜의 식민지였다고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야사를 복원하라고 했더니 국민 혈세로 일본극우파 황국사관 선전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 전시회가 부산에 이어 일본까지 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세로 일본 한복판에서 일본 극우파 역사관을 선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국세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감독하고 시정해야 할 관계기관들은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고도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순국선열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노릇입니다.

이제 다시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역사를 빼앗긴 민족은 나라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비판하는 학술대회와 이런 망국적 현상의 재발을 막는 방안을 강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일본극우파의 황국사관을 선전하는 매국적 행태를 낱낱이 조사해 책임을 묻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망국민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일시: 2020. 2. 25 (화) 14:00~18:00

1 부 : 학술대회 “재상륙한 임나일본부설 비판” (14:00~15:40)

<일본서기>의 임나일본부설과 정한론 : 남창희 (인하대교수)

임나는 가야가 일본에 세운 분국이다 :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광개토대왕릉비에 나타난 왜의 실체 - 분설국과 관련해서 -

(거래열살리기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2 부 : 국민대토론회 “재상륙한 황국사관, 어떻게 해체시켜야 하나” (16:00~18:00)

사회 : 안재휘 (미디어 시비비비 발행인, 전 한국기자협회장)

이종찬 (전 국정원장), 이동일(순국선열 유족회장), 이항증(석주 이상룡선생 증손),

주경중(‘하얼빈’감독) 등 패널 다수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 층) / 지하철 시청역 4 번 출구 도보 2 분

